

랜선으로 만나고 전시회 개최... 서울 문화생활 비대면 혁신

서울시 자치구·기관 코로나 대응 강남구, 온라인 다문화 축제 진행 동작구, 비대면 미래교육 프로젝트 서울대공원, 전시형태로 행사 전환

수도권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서울의 축제·전시·교육 문화가 바뀌고 있다.

11일 서울 자치구들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랜선 축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장기 전시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 강남구는 이달 1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2021 온라인 강남구 다문화 축제'를 진행한다. 행사 프로그램은 ▲집에서 즐기는 세계문화 ▲실시간 줌 클래스 ▲SING(싱)나는 노래대회 ▲강남구 다문화 퀴즈왕 ▲다가가는 다문화 꾸러미 '다다꾸'로 구성됐다.

'집에서 즐기는 세계문화'는 행사 참여 가정에 배부된 탕후루, 마트료시카, 잭스톤, 바나나 로피, 망고 라씨 체험



2021 온라인 강남구 다문화 축제(인터넷으로 즐기는 다문화체험 'INJOY') 홈페이지 구성. /서울 강남구

키트를 외국인 진행자와 함께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또 축제 참여자들은 '실시간 줌 클래스'를 통해 베트남 요리인 반쎌오, 중국 요리인 경장육사, 일본 요리인 오꼬노미야키 등을 해당 국가 강사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중국과 일본의 차문화 비교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퀴즈대회도 마련됐다. '강남구 다문화 퀴즈왕' 대회에서

는 관내 4~6학년 초등학생 40명이 퀴즈 실력을 겨룬다. 다가가는 다문화 꾸러미 '다다꾸'는 강남구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기관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의상과 놀이, 악기를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강남구는 오는 19일 온라인 강남구 다문화 축제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이달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인터넷으로 즐기는 다문화체험 INJOY(Internet+

Joy)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 동작구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학부모 미래교육 프로젝트를 벌인다. 학교에서 다루지는 미래교육을 학부모가 직접 경험케 함으로써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부모 역할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다.

프로젝트는 가족 메이커 대회인 '새활용으로 동작하라'와 학부모 소프트웨어 교육인 '디지털 리터러시로 자녀와 소통하기'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새활용으로 동작하라는 이엘와이어, 적외선센서, DC모터 등이 포함된 키트와 재활용품을 활용해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한 메이커 작품을 제작하는 행사다. 구는 7월 14일부터 참가가족(3인이 상으로 구성된 100가족)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줌으로 실시간 행사에 참여한 뒤 결과물 영상을 밴드에 업로드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내달 14일 우수 작품에 상을 줄 계획이다.

학부모 소프트웨어 교육 참가자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메타버스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들은 후 VR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를 실습하게 된다. 오는 9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관내 거주 학부모 120여명을 모집한다.

서울대공원은 일회성 행사를 다수가 장기간 즐길 수 있는 '전시' 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초 서울대공원은 7월 여름 숲 산책, 8월 대공원일기 공모전, 9월 호숫가 영화제, 10월 동물원 속 미술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집합행사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져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하반기 전시 준비를 한 뒤 9~10월에는 꽃의 숲 정원 전시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6회 동물원 속 미술관 행사를 열기로 했다.

'꽃의 숲 정원 전시'는 꽃과 동물 조형물을 연출해 사진 찍기 좋은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고, '동물원 속 미술관'은 자연재료를 소재로 한 동물 조형물을 제작해 전시하는 프로젝트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2023년까지 서울 전역에 IoT망 설치”

서울시 교통·방범 등 데이터 수집 시민 체감도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공공 사물인터넷(IoT)망을 시 전역에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전역에 사물인터넷망이 깔리면 도시 곳곳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교통·안전·환경·보건·시설물·방범·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목표다.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상수도 원격검침', 전통시장 전력 모니터링을 통한 'IoT 화재감지', 홀몸어르신 가정 내 움직임 감지센서를 이용한 'IoT 고독사 방지' 서비스 등이 그 예다.

향후 시는 스마트업과 연구기관에 이



구로구 스마트보안등 설치 모습. /서울시

데이터를 제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연내 서울 모든 곳에 사물인터넷 통신망(LoRa 간선망) 421km를 구축한다. 로라(LoRa)는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다. 도심지역에서 수km 커버리지가 보장되고 데이터양이 적은 위험물관리, 가로등제어, 원격검침 등의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연말까지 공공 사물인터넷망의 중앙 컨트롤타워인 운영 플랫폼을 서울시청에 설치할 방침이다. 해당 플랫폼은 서울 전역에서 센서를 통해 수집된 각종 도시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사물인터넷망 구축과 함께 은평·구로·서초 3개 자치구에서 IoT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은평구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구로구는 '스마트보안등', 서초구 '미세먼지 예·경보' 서비스를 시민에게 선보이게 된다.

/김현정 기자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 킷보드 견인

서울시 견인료 4만원 부과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킷보드를 견인해간다고 11일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킷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시는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차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에 주·정차된 전동킷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해가기로 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공유 전동킷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해 갈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후에도 업체에서 전동킷보드를 거둬들여 가지 않으면 견인조치할 예정이라고



불법 주·정차된 전동킷보드와 QR코드를 인식해 신고하는 모습. /서울시

시는 전했다.

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전동킷보드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 '서울-PM'을 운영키로 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킷보드 업체에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하도록 조치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해간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계절관리제 단속차량 과태료 환급

별도 증빙 없이 환급 안내문 발송

서울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을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 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

기 때문에 8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8911대에 1억 10만원의 과태료(11만2222건)를 부과했다. 그간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차량에 대해서는 5만4044건(48%)의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고, 이 중 과태료가 납부된 3321건은 환급 진행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와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1 | 해질 / 19:55

7월 12일 (월) 음력 : 6월 3일

수도권 날씨 24 ~ 3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인천 23/31, 동두천 23/31, 가평 22/31, 파주 23/31, 서울 24/32, 양평 23/31, 수원 25/31, 용인 25/31, 평택 24/3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9.7% 백신 미접종자
▲19일 모든 규제 철폐 밝힌 英, 하루 3만2367명 감염 /사진 뉴시스

▲아이티 임시정부, 미국과 유엔에 파병 요청...“도움 필요해”
▲한은 “중국 하반기부터 코로나 딛고 성장할 듯”



▲홍남기 “G20 회의서 디지털세 과세권 20% 주장...美에도 전달”
▲美 아파트 붕괴 사망자, 86명으로 증가...43명 실종 /사진 뉴시스